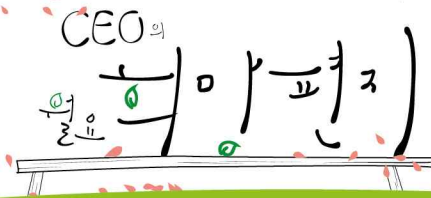


게시일 : 04월 10일

04월 3주차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2017. 04. 10. (월)

사랑하는 공사 가족 여러분!

오늘 임직원께 'CEO 월요희망 편지'를 드리면서
맘속으로 매일 2~3차례 이렇게 소통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내용보다는 신변잡기를 서로 같이 나눔으로써
부담 없이 읽어볼 것이라고 여겨 가벼운 주제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닭띠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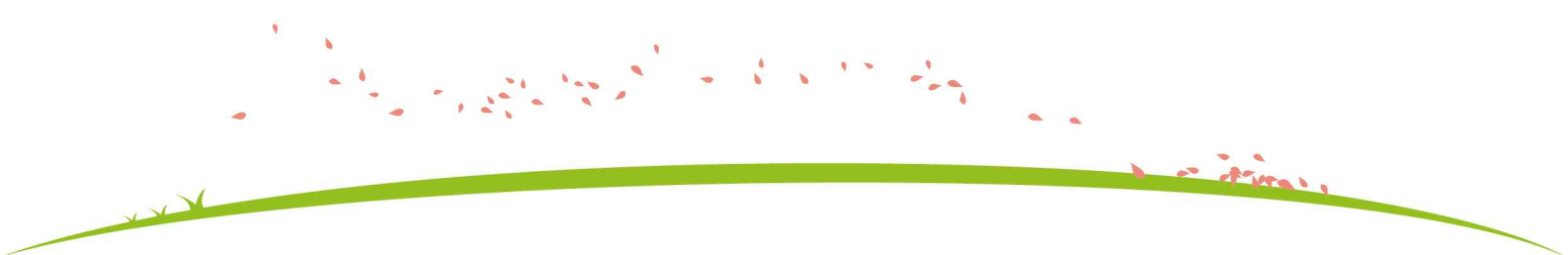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새벽을 깨우는 '꼬끼요' 소리가 들리는 '토종닭 마을' 교래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해라고 느껴집니다.

지난주 저는 사랑하는 임직원들과 함께 취임식을 맞이했고,
'글로벌 창의 기업'을 향한 커다란 흐름에 합류하였습니다.

공사를 반듯하게 키워주신 훌륭한 선배님으로부터 baton을 이어받은 저로서는
두려움 반, 자신감 반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여러분과 같이 소통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긍심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나태주 시인은 들판에 핀 하찮은 꽃을 보고도 마치 사람을 대하듯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의 편지로서 임직원들과 완벽한 교감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어색한 관계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여 저 스스로 먼저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수탉이 ‘꼬기요’라고 뿔을 치는 우렁찬 울음소리는
‘어둠’을 쫓고 위대한 역사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토종닭 마을에 둥지를 튼 우리 공사도 닭의 ‘개혁정신’을 본받아 장대한 출발을 합시다.

사랑하는 공사 가족 여러분!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松茂柏悅, 송무백열)는 말은
동료가 잘되는 것을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흥하는 이웃이 있으면 같이 흥한다는 말처럼 한 배에 같이 탄 우리는
상하좌우를 살펴보고 좋은 일을 발견하면 아낌없이 박수를 쳐 줍시다.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글로벌 창의 기업을 향해 힘차게, 힘차게 나아갑시다!